

제6회 광주일보문학상 이수행씨 인터뷰

## “명랑한 삶, 지고지순한 사랑 쓰고 싶어”

“40대를 정리한다는 마음으로 지난 여름 두 번째 시집도 냈는데 이렇게 뜻 깊은 상까지 받게 됐습니다.”

‘유정포구’(有情浦口) 등 시 3편으로 ‘제6회 광주일보문학상’을 수상한 이수행(48)씨는 ‘생애 첫 문학상이고 신춘문학회의 애정이 깊은 상이라 기쁘고 감사할 뿐’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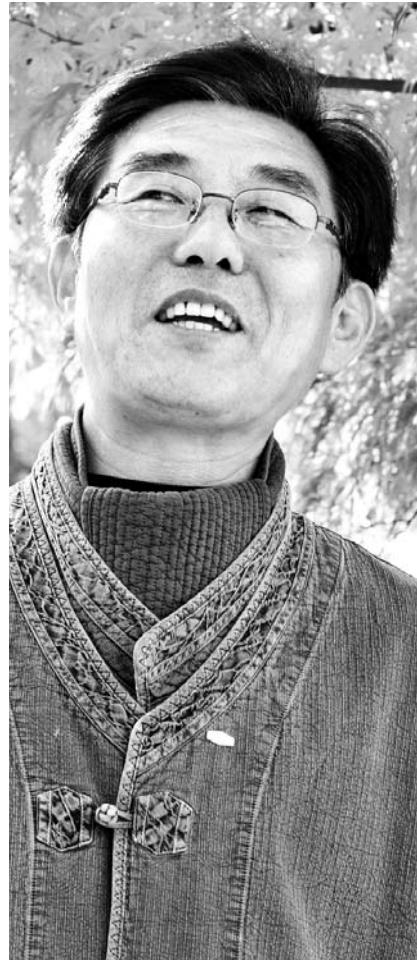
오랜만에 술 한잔하고 있는데 수상 소식을 들어 술값 폐나 나왔다며 겸연쩍어

몰려왔고 사람에 대한 실망감도 컸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눈을 둘린 것이 ‘십우(尋牛)’를 위한 합장(合掌) 같은 풍자시.

“여기럽고 혼탁한, 아비함으로 가득찬 사회를 풍자로 풀어보려고 했고 잘못된 것에 대한 애유를 보내면서도 회방을 놓쳐 말리는 바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씨는 ‘소리’하는 시인으로도 이름이 나았다. 20대 회원원 시절 판소리 동아리를 만들어 공부했던 것을 계기로 소리도



40대 정리한다는 마음으로 쓴 시, 기쁘고 감사할 뿐

문학에 미쳐야 좋은 작품 나와… 산문집 발간 예정도

하는 이씨는 “삶에 있어 중요한 시기, 큰 힘이 되는 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1995년 광주일보 신춘문예에 ‘영산강’이 당선되면서 작품활동을 시작한 이씨는 90년도 후반 문화·예술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등단 이후 한국작가회의 전신인 (사)민족문학가회의와 민예총 등 주로 진보선 진영에서 일했다. 그 인연으로 1997년 월간 ‘말’지가 선정한 ‘21C 움직임 진보인사 2000인’에 선정되기도 했다.

이씨는 올해 시집 ‘시디신 뒤안길’을 내며 변화를 모색했다. 첫 시집 ‘영산강’ 발표 이후 삶에 대한 회의와 실망으로 시를 작곡하다시피 해온 이씨는 지난해 겨우 문학적 열정을 회복하고 다시 시를 추켜들었다.

이씨에게 있어 지난 10년은 고통과 번뇌의 시기였다. 세상과 삶에 대한 회의가

하고, 장기를 살려 전주대사습 창작 판소리 장편사설 공모전에 응모해 입상하기도 했다. 새만금공사에 부당함을 “조개없이 살아갈 수 있느냐”는 험준조로 풍자한 ‘조개전’이 그 작품이다.

“맑고 영롱한 시각으로 희고 명랑한 삶, 지고지순한 사랑을 담은 시를 써볼 작정입니다.”

이를 위해선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원대하고 용성해져야 한다는 시인은 많은 공부가 필요할 것이고 열정도 요구될 것이라고 말한다.

“문학에 미쳐야 좋은 작품이 나온다”고 강조하는 이씨는 “바르고 순수한 것에 대한 시 쓰기에 힘쓸 예정이며 그동안 쓴 글들을 엮은 산문집 발간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사진=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 광주일보 문학상은

광주일보 신춘문예 출신 작가들의 융성한 창작활동 지원을 위해 광주일보가 2005년 제정한 상으로 1년간 신작 및 기발표작(2009 11월1일 이후)을 대상으로 한다.

## “유정포구”는 시의 혼과 정신이 번뜩이는 작품”

### 심사평

올해 광주일보문학상 공모에 참여한 작가는 25명으로 소설 8편, 시 30편, 동시 3편, 동화 7편, 희곡 1편 등 총 49편이 출품됐다.

이중 아동문학 2편, 시 2편, 희곡 1편, 소설 2편이 최종심에서 자동으로 제외된다.

다소 감상적인 노출이나 함량에서 밀려나 있는 작품, 구성의 혈렬함, 무성한 언어 속에 명쾌하게 잡히지 않은 의미체로 인

한 공소합 등이 드러난 작품이 제외됐다.

정통 희곡의 드든한 꿀꺽을 갖춘 희곡 작품에도 오래 시선을 두었으나 결코 다수가 응모한 장르 배려차원에서 밀렸다.

독자는 작가가 공을 들인 언어의 숲에서 의미 있는 인간과의 만남을 기대한다. 사소함으로 그치거나 정곡을 찌르지 못한 체 위성마냥 빙빙 헛바퀴 도는 언어의 숲은 공허하다. 무디어진 영혼의 일개움이나 벼르던 자기성찰의 기대감이 미수로 그치고 말 타이거이다.

수상작 ‘유정포구’(有情浦口)는 그런 점

에서 섬뜩한 비의를 품고 효과적으로 독자의 정수리를 파고들만한 시이다. 시의 알맹이의 결곡함, 긴장감이 묻은 유효화된 언어들이 고유한 시의 접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시의 혼과 정신의 예각이 번뜩이고 있음이 증명되어 심사위원의 일지된 합의를 끌어내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

결론적으로 질적 양적 수준을 높여가는 신춘문학회 역량을 증명해 보인 많은 응모작들이 ‘광일문학상’의 권위와 신뢰감을 두텁게 하리라 기대한다.

〈심사위원: 이지훈·고재종·윤선흥〉

한 공소합 등이 드러난 작품이 제외됐다.

정통 희곡의 드든한 꿀꺽을 갖춘 희곡 작품에도 오래 시선을 두었으나 결코 다수가 응모한 장르 배려차원에서 밀렸다.

독자는 작가가 공을 들인 언어의 숲에서 의미 있는 인간과의 만남을 기대한다. 사소함으로 그치거나 정곡을 찌르지 못한 체 위성마냥 빙빙 헛바퀴 도는 언어의 숲은 공허하다. 무디어진 영혼의 일개움이나 벼르던 자기성찰의 기대감이 미수로 그치고 말 타이거이다.

수상작 ‘유정포구’(有情浦口)는 그런 점

에서 섬뜩한 비의를 품고 효과적으로 독자의 정수리를 파고들만한 시이다. 시의 알맹이의 결곡함, 긴장감이 묻은 유효화된 언어들이 고유한 시의 접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시의 혼과 정신의 예각이 번뜩이고 있음이 증명되어 심사위원의 일지된 합의를 끌어내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

결론적으로 질적 양적 수준을 높여가는 신춘문학회 역량을 증명해 보인 많은 응모작들이 ‘광일문학상’의 권위와 신뢰감을 두텁게 하리라 기대한다.

〈심사위원: 이지훈·고재종·윤선흥〉

한 공소합 등이 드러난 작품이 제외됐다.

정통 희곡의 드든한 꿀꺽을 갖춘 희곡 작품에도 오래 시선을 두었으나 결코 다수가 응모한 장르 배려차원에서 밀렸다.

독자는 작가가 공을 들인 언어의 숲에서 의미 있는 인간과의 만남을 기대한다. 사소함으로 그치거나 정곡을 찌르지 못한 체 위성마냥 빙빙 헛바퀴 도는 언어의 숲은 공허하다. 무디어진 영혼의 일개움이나 벼르던 자기성찰의 기대감이 미수로 그치고 말 타이거이다.

수상작 ‘유정포구’(有情浦口)는 그런 점

에서 섬뜩한 비의를 품고 효과적으로 독자의 정수리를 파고들만한 시이다. 시의 알맹이의 결곡함, 긴장감이 묻은 유효화된 언어들이 고유한 시의 접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시의 혼과 정신의 예각이 번뜩이고 있음이 증명되어 심사위원의 일지된 합의를 끌어내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

결론적으로 질적 양적 수준을 높여가는 신춘문학회 역량을 증명해 보인 많은 응모작들이 ‘광일문학상’의 권위와 신뢰감을 두텁게 하리라 기대한다.

〈심사위원: 이지훈·고재종·윤선흥〉

한 공소합 등이 드러난 작품이 제외됐다.

정통 희곡의 드든한 꿀꺽을 갖춘 희곡 작품에도 오래 시선을 두었으나 결코 다수가 응모한 장르 배려차원에서 밀렸다.

독자는 작가가 공을 들인 언어의 숲에서 의미 있는 인간과의 만남을 기대한다. 사소함으로 그치거나 정곡을 찌르지 못한 체 위성마냥 빙빙 헛바퀴 도는 언어의 숲은 공허하다. 무디어진 영혼의 일개움이나 벼르던 자기성찰의 기대감이 미수로 그치고 말 타이거이다.

수상작 ‘유정포구’(有情浦口)는 그런 점

에서 섬뜩한 비의를 품고 효과적으로 독자의 정수리를 파고들만한 시이다. 시의 알맹이의 결곡함, 긴장감이 묻은 유효화된 언어들이 고유한 시의 접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시의 혼과 정신의 예각이 번뜩이고 있음이 증명되어 심사위원의 일지된 합의를 끌어내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

결론적으로 질적 양적 수준을 높여가는 신춘문학회 역량을 증명해 보인 많은 응모작들이 ‘광일문학상’의 권위와 신뢰감을 두텁게 하리라 기대한다.

〈심사위원: 이지훈·고재종·윤선흥〉

한 공소합 등이 드러난 작품이 제외됐다.

정통 희곡의 드든한 꿀꺽을 갖춘 희곡 작품에도 오래 시선을 두었으나 결코 다수가 응모한 장르 배려차원에서 밀렸다.

독자는 작가가 공을 들인 언어의 숲에서 의미 있는 인간과의 만남을 기대한다. 사소함으로 그치거나 정곡을 찌르지 못한 체 위성마냥 빙빙 헛바퀴 도는 언어의 숲은 공허하다. 무디어진 영혼의 일개움이나 벼르던 자기성찰의 기대감이 미수로 그치고 말 타이거이다.

수상작 ‘유정포구’(有情浦口)는 그런 점

에서 섬뜩한 비의를 품고 효과적으로 독자의 정수리를 파고들만한 시이다. 시의 알맹이의 결곡함, 긴장감이 묻은 유효화된 언어들이 고유한 시의 접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시의 혼과 정신의 예각이 번뜩이고 있음이 증명되어 심사위원의 일지된 합의를 끌어내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

결론적으로 질적 양적 수준을 높여가는 신춘문학회 역량을 증명해 보인 많은 응모작들이 ‘광일문학상’의 권위와 신뢰감을 두텁게 하리라 기대한다.

〈심사위원: 이지훈·고재종·윤선흥〉

한 공소합 등이 드러난 작품이 제외됐다.

정통 희곡의 드든한 꿀꺽을 갖춘 희곡 작품에도 오래 시선을 두었으나 결코 다수가 응모한 장르 배려차원에서 밀렸다.

독자는 작가가 공을 들인 언어의 숲에서 의미 있는 인간과의 만남을 기대한다. 사소함으로 그치거나 정곡을 찌르지 못한 체 위성마냥 빙빙 헛바퀴 도는 언어의 숲은 공허하다. 무디어진 영혼의 일개움이나 벼르던 자기성찰의 기대감이 미수로 그치고 말 타이거이다.

수상작 ‘유정포구’(有情浦口)는 그런 점

에서 섬뜩한 비의를 품고 효과적으로 독자의 정수리를 파고들만한 시이다. 시의 알맹이의 결곡함, 긴장감이 묻은 유효화된 언어들이 고유한 시의 접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시의 혼과 정신의 예각이 번뜩이고 있음이 증명되어 심사위원의 일지된 합의를 끌어내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

결론적으로 질적 양적 수준을 높여가는 신춘문학회 역량을 증명해 보인 많은 응모작들이 ‘광일문학상’의 권위와 신뢰감을 두텁게 하리라 기대한다.

〈심사위원: 이지훈·고재종·윤선흥〉

한 공소합 등이 드러난 작품이 제외됐다.

정통 희곡의 드든한 꿀꺽을 갖춘 희곡 작품에도 오래 시선을 두었으나 결코 다수가 응모한 장르 배려차원에서 밀렸다.

독자는 작가가 공을 들인 언어의 숲에서 의미 있는 인간과의 만남을 기대한다. 사소함으로 그치거나 정곡을 찌르지 못한 체 위성마냥 빙빙 헛바퀴 도는 언어의 숲은 공허하다. 무디어진 영혼의 일개움이나 벼르던 자기성찰의 기대감이 미수로 그치고 말 타이거이다.

수상작 ‘유정포구’(有情浦口)는 그런 점

에서 섬뜩한 비의를 품고 효과적으로 독자의 정수리를 파고들만한 시이다. 시의 알맹이의 결곡함, 긴장감이 묻은 유효화된 언어들이 고유한 시의 접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시의 혼과 정신의 예각이 번뜩이고 있음이 증명되어 심사위원의 일지된 합의를 끌어내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

결론적으로 질적 양적 수준을 높여가는 신춘문학회 역량을 증명해 보인 많은 응모작들이 ‘광일문학상’의 권위와 신뢰감을 두텁게 하리라 기대한다.

〈심사위원: 이지훈·고재종·윤선흥〉

한 공소합 등이 드러난 작품이 제외됐다.

정통 희곡의 드든한 꿀꺽을 갖춘 희곡 작품에도 오래 시선을 두었으나 결코 다수가 응모한 장르 배려차원에서 밀렸다.

독자는 작가가 공을 들인 언어의 숲에서 의미 있는 인간과의 만남을 기대한다. 사소함으로 그치거나 정곡을 찌르지 못한 체 위성마냥 빙빙 헛바퀴 도는 언어의 숲은 공허하다. 무디어진 영혼의 일개움이나 벼르던 자기성찰의 기대감이 미수로 그치고 말 타이거이다.

수상작 ‘유정포구’(有情浦口)는 그런 점

에서 섬뜩한 비의를 품고 효과적으로 독자의 정수리를 파고들만한 시이다. 시의 알맹이의 결곡함, 긴장감이 묻은 유효화된 언어들이 고유한 시의 접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시의 혼과 정신의 예각이 번뜩이고 있음이 증명되어 심사위원의 일지된 합의를 끌어내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

결론적으로 질적 양적 수준을 높여가는 신춘문학회 역량을 증명해 보인 많은 응모작들이 ‘광일문학상’의 권위와 신뢰감을 두텁게 하리라 기대한다.

〈심사위원: 이지훈·고재종·윤선흥〉

한 공소합 등이 드러난 작품이 제외됐다.

정통 희곡의 드든한 꿀꺽을 갖춘 희곡 작품에도 오래 시선을 두었으나 결코 다수가 응모한 장르 배려차원에서 밀렸다.

독자는 작가가 공을 들인 언어의 숲에서 의미 있는 인간과의 만남을 기대한다. 사소함으로 그치거나 정곡을 찌르지 못한 체 위성마냥 빙빙 헛바퀴 도는 언어의 숲은 공허하다. 무디어진 영혼의 일개움이나 벼르던 자기성찰의 기대감이 미수로 그치고 말 타이거이다.

수상작 ‘유정포구’(有情浦口)는 그런 점

에서 섬뜩한 비의를 품고 효과적으로 독자의 정수리를 파고들만한 시이다. 시의 알맹이의 결곡함, 긴장감이 묻은 유효화된 언어들이 고유한 시의 접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시의 혼과 정신의 예각이 번뜩이고 있음이 증명되어 심사위원의 일지된 합의를 끌어내는데 큰 어려움이